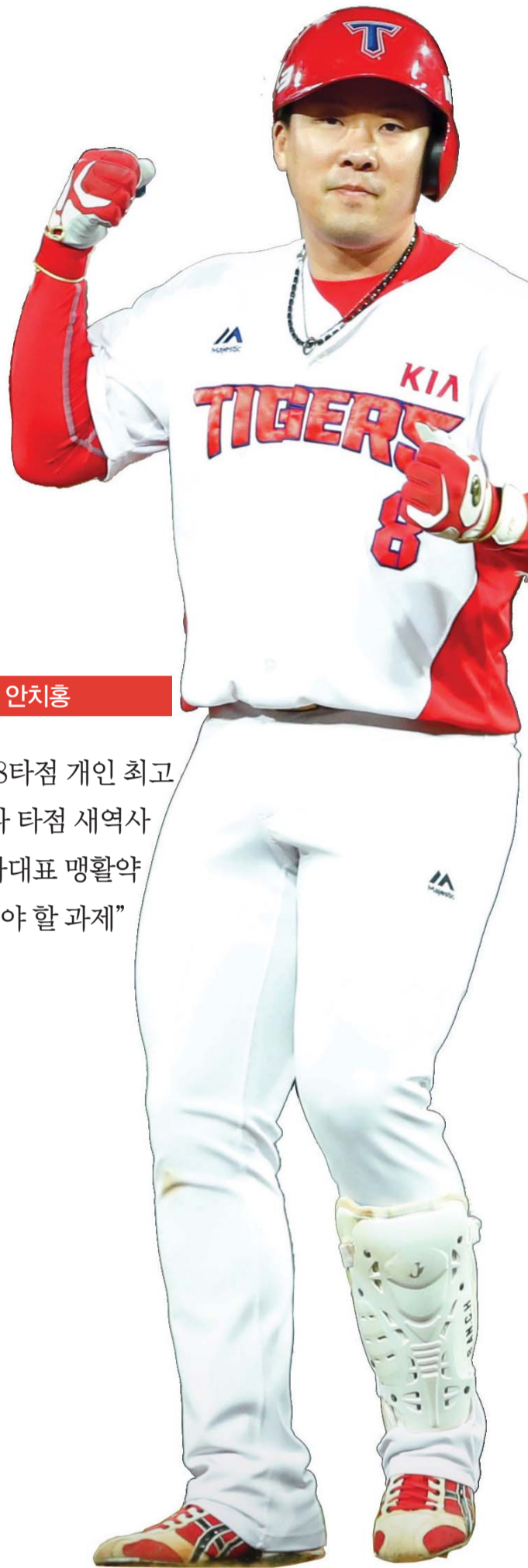


# “실패에서 배운다! ... 성적 달라도 야구사랑 같아요”

## KIA 타이거즈 서울고 선후배 듀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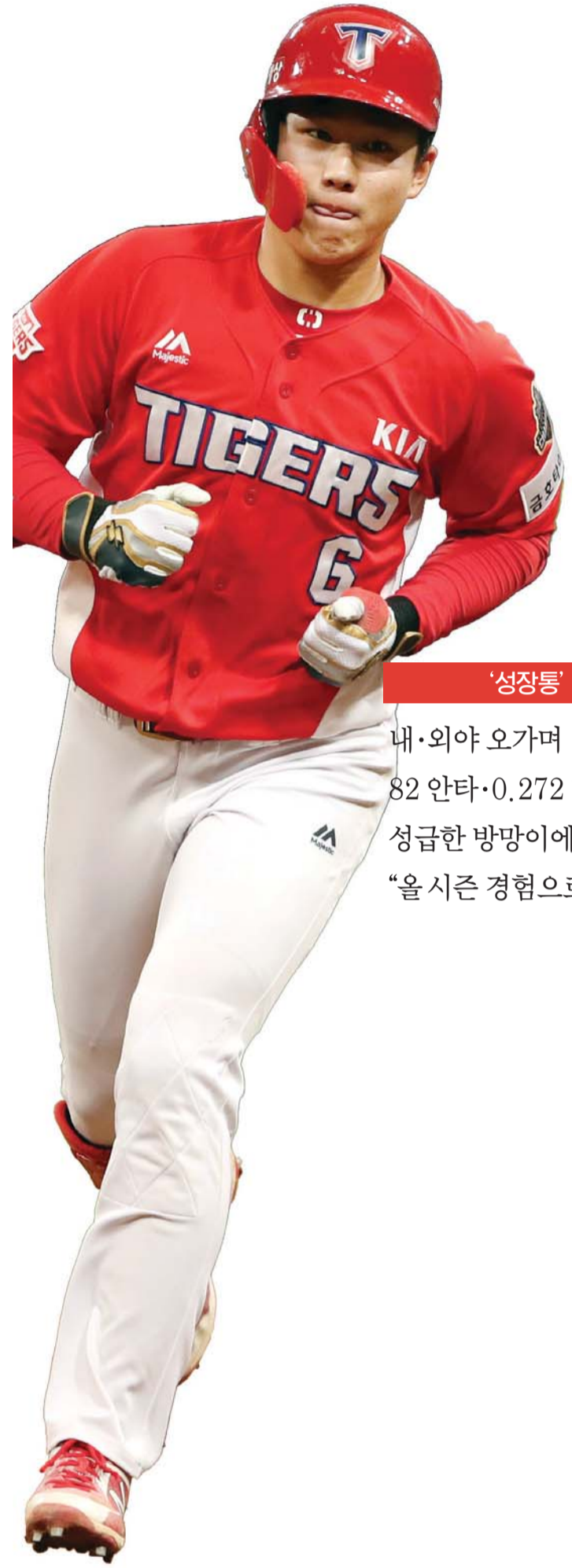


‘해결사’ 안치홍

0.342 타율·118타점 개인 최고  
KBO 2루수 최다 타점 새역사  
팀 4번타자·국가대표 맹활약  
“몸 쪽 견제 이겨야 할 과제”

엇갈린 ‘서울고 듀오’ 안치홍과 최원준의 2018시즌이었다.  
KIA는 지난 2016년 2차 1라운드에서 서울고 내야수 최원준을 지명했다. 최원준은 고교 무대를 접수한 화끈한 타격 실력과 빠른 발로 ‘안타 치고 도루하는’ 서울고 7번 선배인 안치홍을 떠올리게 했다. 최원준 역시 안치홍을 롤모델로 언급하면서 ‘리틀 안치홍’을 꿈꿨다.  
두 사람은 안치홍의 전역으로 지난 시즌 본격적으로 동료로 호흡을 맞췄다.  
안치홍은 지난해 완벽한 복귀 시즌을 보내면서 2년의 군 공백을 지웠다. 132경기에서 나와 0.316의 타율과 21개의 공을 담장 밖으로 날기면서 처음 20홈런 고지도 밟으며 올 시즌에도 다이너마이트 타선의 중심으로 주목을 받았다.  
최원준도 2017년 ‘경협’이라는 큰 자산을 얻었다.  
데뷔 첫해였던 2016시즌 13경기 출전에 그쳤던 최원준은 지난해 72경기에서 나와 48개의 안타를 기록했다. 연장 끝내기 만루홈런 포함 3개의 홈런도 기록했다. 무엇보다 부상으로 빼졌던 시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1군에 머물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지난 시즌 우승을 이끈 막강 타선의 선배들이 최원준의 특별한 스승들이었다.  
이미 있는 2017시즌을 보냈던 만큼 올 시즌 두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컸다.  
기대대로 안치홍은 팀의 ‘4번 타자’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루수로도 맹활약했다.  
꾸준하고 강렬한 활약으로 시즌 중반 4번으로 이동한 안치홍은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 아시안 게임에서도 대표팀의 중심 타자는 물론 3루까지 소화하며 금메달을 이끌었다.  
타율 0.342, 23홈런 118타점 등 자신의 최고 기록을 새로 작성한 안치홍은 역대 KBO 국내 2루수 최다 타점 주인공이라는 타이틀도 차지했다. 하지만 최원준의 2018시즌은 아쉬움으로 끝났다.  
쟁쟁한 선배들 사이에서 확실한 포지션을 갖지 못한 최원준은 내·외야를 오가며 입단 후 가장 많은 101경기를 소화했다.  
82개의 안타로 타율은 0.272. 하지만 타점은 지난해보다 5점밖에 더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성급하게 방망이가 나가는 모습이었다. 20개의 볼넷을 골라낸 최원준은 58타석에서 삼진으로 돌아섰다. 병살타도 4개를 기록했다.  
자신의 첫 포스트 시즌 경기에서도 방망이가 잇달아 헛돌았다. 2017 한국시리즈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지만,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던 최원준은 지난 16일 넥센과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6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하며 첫 가을 잔치에 나섰다.  
하지만 첫 타석에서 2루수 땅볼로 물러난 최원준은 남은 세 타석에서는 모두 삼진을 당했다.  
엇갈린 시즌이었지만 다음을 기억하는 두 사람의 각오는 “실패에서 배우겠다”로 비슷하다.  
안치홍은 “나는 일반적인 4번 타자는 아니다. 다른 4번 타자들처럼 홈런을 치는 타자는 아니지만 상황에 맞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올 시즌 타점 기록이 의미가 있다”면서도 “나중에 상대가 몸쪽으로 견제를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심하게 겪은 것은 처음이다. 이것을 이겨내야 한다. 한번 무너졌을 때 많이 안 좋았던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내년 시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준은 “올 시즌 생각보다 잘 안되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많이 시도했다. 자주 새로운 것을 해보려다 보니 내 것을 잃어버린 느낌이다. 내 스윙이 아니었다. 마지막에 조금 내 모습을 찾는 것 같았는데 많이 급했다”며 “올 시즌 잘하지는 않았는데 못하면서 배웠다. 배운 것을 바탕으로 내 야구를 찾는 게 목표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성장통’ 최원준

내·외야 오가며 101경기 소화  
82 안타·0.272 타율 ‘아쉬움’  
성급한 방망이에 삼진 많아  
“올 시즌 경험으로 내 것 찾겠다”

## 광주 FC, 수원 잡고 PO 불씨 살린다

21일 홈에서 K리그2 33R ... 남은 4경기 다 이겨야 PO 가능성

프로축구 광주 FC가 안방에서 ‘끝까지 가는 승부’를 벌인다.  
광주는 21일 오후 3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FC와 2018 K리그2 33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5위 광주는 실낱같은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을 붙잡고 있다. 4위 대전 시티즌과 승점 8점 차가 있지만 플레이오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 남은 4경기에서 전승을 해야 기적을 바라볼 수 있다.  
4위 도전에 앞서 5위 사수가 광주의 우선 목표가 됐다.  
FC 안양이 1점 차 6위로 광주를 올려보고 있고, 7위 수원FC도 승점 2점 차로 광주를 쫓고 있다. 이번 대결 결과에 따라서 5위 자리가 바뀔 수도 있다.  
광주는 적극적인 공격으로 ‘승점 3’을 노리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최근 4경기에서 8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 공격의 중심에는 에이스 나상호가 있다.  
나상호는 3경기 연속골(4골)로 팀 공격의 선봉에 서있다. ‘외국인 듀오’ 펠리페(1골 1도움)와 두아르테(2골 1도움)의 움

직임도 든든하다.  
광주는 지난봄을 떠올리고 있다. 광주는 4월 수원FC와의 홈경기에서 나상호의 멀티골에 힘입어 5-0 대승을 거둔 적이 있다. 올 시즌 전적에서도 2승 1무로 앞서있다.  
화력은 막강하지만 수비가 고만이다. 광주는 최근 3경기에서 1승 2무로 무패행진을 이었지만 무실점 경기에는 실패했다. 견고하고 집중력 있는 승부로 승리를 지켜야 한다.  
플랙들의 활약도 중요하다. 박진섭 감독은 최근 박요한, 정준연, 이요름, 여병훈을 중심으로 플랙 로테이션을 가동했다. 측면 공격 강화와 체력 안배를 위한 선택이었다. 세밀한 공격과 안정적인 수비로 기적을 향한 발판을 놓아야 한다.  
최근 6연패에 빠졌던 수원 FC는 지난 라운드 대전과의 경기에서 3-2승리를 거두며 분위기가 반전에 성공했다. 또 5위가 가시권에 있는 만큼 총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공격에 불이 오른 광주가 수원FC를 잡고 기적의 불씨를 계속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류현진 어깨에 걸린 ‘다저스 WS’

LA 5차전 승...내일 승리 팬 월드시리즈 진출

‘빅게임 피쳐’의 위용을 다시 한번 과시할 기회다.  
류현진(31·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팀의 명운을 걸고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CS) 6차전에 선발 등판한다. 다저스는 18일 NLCS 5차전에서 7이닝을 1실점으로 막은 에이스 클레이턴 커크의 호투로 밀워키 브루어스를 5-2로 꺾고 시리즈 전적 3승 2패로 앞서갔다. 1승을 추가하면 다저스는 월드시리즈 진출권을 손에 넣는다.  
다저스는 20일 오전 9시 39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 밀러파크에서 NLCS 6차전을 치른다. 이번 다저스 선발은 류현진이다.  
류현진은 단 한 번도 월드시리즈 무대를 밟지 못했다. 다저스는 지난해 월드시리즈까지 치렀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번 가을, 류현진은 커크와 ‘다저스 원투펀치’로 나서고 있다. 다저스가 밀워키를 제압하면 ‘빅게임 피쳐’ 류현진도 그토록 꿈꾸던 월드시리즈 무대에 오를 수 있다. /연합뉴스

## 준PO 1차전은 외인 투수 대결

한화 선발 헤일 vs 넥센 해커 ... 5전3승제 1차전 승리 중요

2018 KBO 준플레이오프(준PO)는 데이비드 헤일(31·한화 이글스)의 투구로 막을 연다. 에릭 해커(35·넥센 히어로즈)도 팀의 명운을 걸고 마운드에 선다.  
한화와 넥센은 19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 파크에서 열리는 준PO 1차전 선발로 헤일과 해커를 내세웠다.  
‘대체 선수’로 시즌 중반에 영입한 두 투수가 중책을 맡았다.  
한우덕 한화 감독과 장정석 넥센 감독은 18일 대전시 모임공간국보에서 열린 준PO 미디어데이에서 1차전 선발을 공개했다. 예상했던 선발 카드다.  
한 감독은 KIA 타이거즈가 준PO에 올라오면 키버스 샌슨을, 넥센이 준PO 파트너가 되면 헤일을 1차전 선발로 내세우기로 했다.  
넥센이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KIA를 꺾으면서 헤일이 ‘11년 만에 대전에서 열리는 포스트시즌 경기’의 선발로 확정됐다.  
한 감독은 “헤일이 시즌 마지막까지 안정적인 투구를 했다”고 1차전 선발 배경을 설명했다.  
제이스 윌러의 대체 선수로 7월부터 한화에서 뛰 헤일은 12경기에 등판해 3승 4패 평

군자책점 4.34를 올렸다. 넥센을 상대로는 등판한 적이 없다.  
2014~2017년, 4시즌 연속 NC 다이노스 유니폼을 입고 포스트시즌을 치렀던 해커는 올해에도 가을 무대에 오른다. 2018년 가을에는 넥센을 위해 던진다.  
NC에 재계약에 실패한 해커는 KBO리그 재입성을 준비했고, 7월에 넥센과 계약했다. 올 시즌 해커의 성적은 5승 3패 평균자책점 5.20이다.  
한화에서는 8월 10일 한 경기에서 나서 6이닝 7피안타 3실점(2자책)의 무난한 투구를 했다.  
장 감독은 “해커가 지난해에도 (NC에서) 큰 경기를 치렀다. 1차전 선발이 정말 중요한데 해커가 좋은 투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준PO가 5전3승제로 치러진 11년 중 1차전 승리 팀이 PO에 진출한 건 7차례다. 1차전에서 승리한 팀은 한결 유리하게 남은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  
한화와 넥센은 시즌 중반 ‘반전 카드’로 헤일과 해커를 택했다. 준PO에서는 기선제압을 위해 두 투수를 내세웠다.

/연합뉴스